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진주시 덕진구 인우동1기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민성동1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이타워1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3월 6일(금) 제 3274호

## 전북도, 국토부와 '200만 메가시티' 청사진

## 전북도, 청년 유출 대응 총력 6,300명 구직·정착 종합지원

새만금 계획 '실행형' 전면 재편  
2040년 이전 80% 개발 '속도전'  
전주 대도시권 공간 혁신  
광역철도 등 1시간 생활권 구축

(1) 전북도가 지난달 타운홀미팅을 기점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 200만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간다.

5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 완성, 전주 대도시권 공간 혁신,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전북의 미래를 국가 성장 전략과 본격적으로 맞물려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전북의 미래비전 구상을 잇따라 보도한다. <편집자 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타운홀미팅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개발 면적의 80%를 오는 2040년 이전에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 용지는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

"약속한 면적은 공공이 책임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선언 아래, 전북도 역시 새만금개발공사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허용 등 재정 기반을 강화해 공공주도 개발을 확대하고, 기 매퍼지의 조기 활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산업 측면에서 새만금의 변화도 가파르다.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중 사업계획이 확정된 3.3GW를 2030년까지 우선 가동한다.

국내 최초 RE100 전용 산단으로 육성해 이차전지·수소 연료전지·AI 데이터센터도 집적하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날 오전 현대차 그룹과 재생에너지, 로봇, 수소, AI 데이터센터 등 9조 원 규모의 투자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국토부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부지 공급부터 규제특례·교통·주거 인프라까지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광역 단위 포괄 특례와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적용하는 '새만금 메가특구' 모델로, SOC·R&D·세계감면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즉시 투자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그룹 투자의 중심 무대가 될 새만금은 AI가 도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로봇이 물류·운



김관영 지사 학생들과 '천원 아침밥'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5일 전북대학교를 찾아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문화 확산 및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천원 아침밥' 홍보와 함께 대학생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전북자치도>

송·돌봄을 지원하는 AI 로봇 도시 선도 모델로 조성된다.

수소 산업도 전북 성장의 핵심 축이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완주 수소 상용차 공장도 연계한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신속히 조성한다. 전북도는 부안 수전해 플랜트 실증을 시작으로 새만금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도 단계 확충하고 생산된 수소 활용을 위한 수소 배관망 구축과 수소 모빌리티 실증을 통해 생산·이동·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주 대도시권 공간 혁신도 속도를 낸다.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연기금 자산 운용 기능을 집적해 금융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기관 수 유치 경쟁이 아닌 기능군 중심 전략으로 접근해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등 핵심 금융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를 통한 MICE 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 조성되는 MICE 복합단지에는 전시컨벤션센터·호텔·백화점 등이 집적된 12만㎡(약 3만 6,000평) 규모로, 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탄소·피지컬 AI·K컬처 역량이 집약된 전주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최초의 도심융합

특구 지정도 추진하며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의 집결지로 탈바꿈한다.

또 국토부는 전북 도약을 위해 전북 내·외부의 총체적 교통망도 함께 구축한다.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잇는 전북권 광역철도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전북을 '1시간 광역 경제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국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으로는 호남고속도로 확장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북도가 건의한 주요 교통망 사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에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국가식품클러스터 인

입선(동익산~완주산단)·서해안선(새만금~목포), 제3차 고속도로 계획에 전주~무주~완주~세종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새만금의 핵심 교통물류망인 국제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완성도 기대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새만금과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성장 전략이 국가 계획과 본격적으로 맞물리게 됐다"며 "기업 투자가 실제 고용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와 정주 여건 조성에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AI신도시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전북타임스>

## 안호영 "현대차 9조 투자, 전북 아시아 AI 신도시로"

AI·수소 결합 미래도시 구상  
의료·데이터·로봇 클러스터  
"글로벌 AI 도시 표준 만들 것"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와 관련된 '아시아 AI 신도시 프로젝트'로 발전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은 5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과 관련해 "현대차가 구상한 'AI 수소 시티'를 전북의 미래 사회 시스템으로 확장한 '아시아 AI 신도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의 9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는 전북 산업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형 국가 성장 전략과 전북에 대한 관심이 결합해 만들어진 성과"라면서 "20대 국회부터 추진해 온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전주·완주 수소 상용차 클러스터를 잇는 수소경제 벨트 전략이 이번 투자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면에서 계속>

IMSIL-GUN  
임실군

천만관광  
명품도시  
이세임실

# 전북도, 해빙기 맞아 인명피해 우려지역 선제 점검

무주 광포지구 급경사지 확인  
자율방재단 간담회 개최  
삼유 재해위험지 정비 점검  
민관 협력 재난 대응 강화

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사항을 철저히 하고, 시군 자율방재단의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또 무주군 적상면 삼거리 광포지구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방문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사전대피 기준과 주민 대피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해당 지역은 사전대피 시 마을회관으로, 피해 발생 시에는 적상초등학교로 대피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관리부서 담당자와 마을 이장, 자율방재단이 연계된 전과-대피체계를 통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이어 삼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218억 원을 투입해 하천 정비 6.7km와 교량 재가설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5일 무주 광포지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삼유 재해예방사업장 현장점검 <사진=전북도>

단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오택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자율방재단연합회와의 소통을 비롯해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재해예방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데 의미가

전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5일 무주군 일원에서 자율방재단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포지구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삼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한 가운데 이번 현장점검은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도와 무주군, 자율방재단연합회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우기 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무주읍에서 열린 자율방재단연합회 간담회에서는 현장 중심 재난 대

<1면에서 이어서>

현대차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6.6km 부지에 피지컬 AI와 수소 에너지를 결합한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플랜트에서 생산한 수소를 도시 에너지로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시스템과 교통·물류·안전 등 생활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전북형 미래도시 구상인 '아시아 AI 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현대차의 계획이 산업 인프라 중심이라면, 이를 시민의 삶과 결합한 인간 중심의 AI 도시로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수변도시에 'AI 공공의료 캠퍼스'를 구축해 AI 기반 기본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안 의원은 "과거 삼성의 투자 무산 사례"를 언급한 뒤에 "이번 투자는 선언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가져온 '미래의 현실'을 도민의 삶 속 '진짜 현실'로 바꾸는 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는 'AI 인재 양성-채용 트랙'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새만금 수소-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생명·문화·관광 산업을 AI 기술과 결합해 김제·부안 일대 'AI 농생명 단지', 수변도시 'AI 콘텐츠 밸리', 고군산군도 'AI 해양 레저지구'를 연결하는 융복합 생태계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현대차의 기술 실증 역량과 재생에너지 기반을 결합해 세계 최초의 'AI-RE100 인증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며 "새만금을 글로벌 AI 도시 표준의 발신지로 만들고 이를 동아시아와 중동 등 해외에 수출하는 'K-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과거 삼성의 투자 무산 사례"를 언급한 뒤에 "이번 투자는 선언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가져온 '미래의 현실'을 도민의 삶 속 '진짜 현실'로 바꾸는 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한병도 "국힘, 국가비상상황에 윤어게인 집회 혈안"

사법3법 규탄 집회 겨냥 비판  
"민생 외면 국회 보이콧"  
대미투자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한병도 의원

24시간 합동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며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급 공급망,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서 총력대응하고 있어서 국회도 긴급하게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어 "(국힘은)민생은 재쟁개진지 오래고, 윤어게인 장외 집회에 혈안이 되어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

한병도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 3법 통과 규탄대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중동사태 등)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이란전쟁으로) 정부는 지금

한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국방위, 산자위 등 핵심 상임위는 개점휴업상태이고, 총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오락가락 역시 발목잡기로 멈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중동발 위기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아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국힘이 진정 진정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극우 망동의 판을 걸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와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대미투자법을 차

질없이 처리하겠다. 국회 대미투자특위 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며 "다음주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외 중심 실용 외교가 또 한번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 필리핀 방문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윤준병, '사양별꿀 명칭개선법' 대표 발의

'사양별꿀'을 '설탕꿀'로 규정  
소비자 알 권리 보호 취지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호한 용어인 '사양별꿀'을 '설탕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양별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양봉의 산물인 벌꿀은 꿀벌이 꽃가루나 수액 등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탕한 '사양별꿀'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같은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사양별꿀의 경우 '사양(飼養)'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축을 기르고 다듬는다'는 추상적인 한자어이기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사양별꿀이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사양별꿀'이라는 용어 대신 설탕을 원료로 했음을 알 수 있는 '설탕꿀'로 명칭을 법제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명확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꿀벌들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숙성시킨 것은 '벌꿀'△꿀벌을 설탕으로 사탕한 후 채밀·숙성시킨 것은 '설탕꿀'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또한 벌꿀 시장의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금지 규정도 포함됐다.

설탕꿀을 벌꿀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설탕꿀을 벌꿀과 혼합하여 마치 순수 벌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했다. 이 외에도 양봉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화하여 양봉산업 전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소비자들은 본인이 구매하는 제품을 명확히 알고 구매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3개 대학 'AI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전북대·국립군산대·전주대 참여  
5년간 226억 규모 추진  
기업 연계 실무형 인재 육성

2026년에는 인공지능(AI) 37개교, 로봇 2개교, 미래차 2개교 등 전국 41개 대학이 신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전북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인공지능(AI) 분야에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들은 앞으로 5년간 총 22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별로 약 71억 원 규모(연 1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기업과 함께 직무를 분석하고 교과목을 공동 개발·운영하며, 현장실습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AI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대학교는 피지컬 AI·방위산업 등

도 특화 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 과정을 통해 산업 수요 기반 AI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군산대학교는 기계설계와 제조공정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첨단기계 AI 부트캠프'를 운영해 산업 현장 중심의 융합형 실무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는 농생명·모빌리티·문화관광 등 전북 전략산업에 적용 가능한 피지컬 AI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해 산업 현장 적용형 AI 인재 육성에 나선다.

각 대학은 기업과 공동으로 교과목을 개발·운영하고 현장실습과 프로젝트 중

심 교육을 강화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형 AI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방산, 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AI 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는 인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도에서 배우고, 전북도 기업에 시 일하는 AI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부트캠프를 지역 디지털 전환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도내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 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 no! 장바구니 ok!**

**세탁비닐 no!**

**일회용 수자, 포크 no!**

# 전주시 청년 '지역정착·활력수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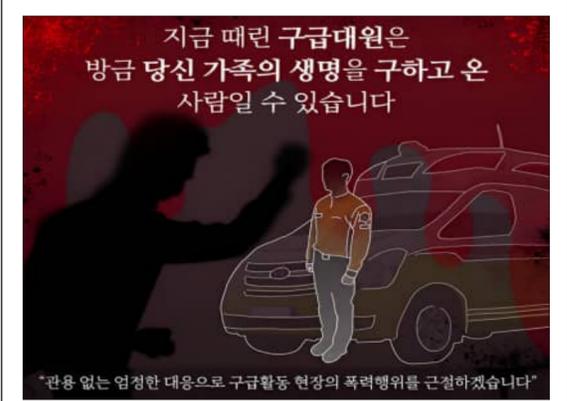
재직 청년 1318명 월 30만원  
미취업 청년 879명 월 50만원

전주시는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지역 산업 종사자 전주시 청년 1318명들에게 매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수당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

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18세~39세)으로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관정 기준)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30%)과 지역화폐(70%)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더불어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통해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감소로 취업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을 돕고 사회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미취업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관정 기준)이면서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북에 거주하는 청년(18세~39세)으로 시는 올해 879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매월 50만원씩을 최대 6개월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50%)과 지역화폐(50%)로 수당을 받게 된다. 시는 대상자가 사업 기간 중 취(창업)

에 성공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50만원 취·창업 성공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 희망 청년들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ttd.ezwell.com)과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누리집(jbyouth.ezwell.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시민 안전지킴이 구급대원 폭언·폭행 '심각'

성숙시민의식 따라야  
국민생명·안전 위협 중대범죄

전북도·시민 안전지킴이 119구급대원에 대한 지역민 바른예절의식이 심각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향한 도·시민 폭언·폭행 근절에 대하여 강력히 당부했다. 이유는 도·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악질로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행법 관련해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이유의 △언어폭력 △실제폭력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을 전개하게 된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21~25년) 간 총 15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전주완산소방서는 전북도·시민 안전지킴이 119구급대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 대응에 들어설 전망이다. △현장 사려 중심 예방교육 확대 △웨어블 캠 및 구급차 내부 CCTV 활용 증거 확보 강화 △폭행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적극 수사 대응 △구급대원 심리 상담 △PTSD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7~8월 홍수기 하천 안전 점검 추진

자연재해 선제 대응 위한  
하천 안전 점검 실시

전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에 대한 홍수기 대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전주시역 32개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대비 강화 계획이다. 안전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시간당 강수량 100mm 넘는 집중호우·발생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하천 제방 및 호안 시설 상태 점검 △하상 퇴적토 및 유수

흐름 저해 요소 확인 △배수통문, 수문 등 하천시설물 작동 상태 점검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적치물 정비 △홍수취약지구 점검·조치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산책로·운동기구·편의 시설 파손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 및 응급조치를 완료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신속히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또 시는 하천 내 쓰레기 투기 및 불법 경작 등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재난 대응체계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84개 방산 기업, 협력 강화·발전 방안 모색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간담회  
기업 국방시장 진입  
사업화 확대 전략 구체화

전주시와 전북국방벤처센터(센터장 최석규)는 5일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간담회'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84개사 대표와 임직원, 협약기업 협의회

회장단(회장 박연옥)이 참여해 기업 간 교류 확대와 공동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사는 △협약기업 협의회 추진성과 안내 △방사청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 국방벤처지원사업 소개 △중소기업 사이버침해(해킹메일) 예방 및 대응 방안 △협약기업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방위사업청 지원사업

과 2026년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연계해 기업의 국방시장 진입과 사업화 확대 전략을 구체화하며 최근 증가하는 해킹메일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역량을 키워 기업 보안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기로 했다. 또 ㈜바로텍시너지의 방산육성지원사업 선정과 ㈜음도웰의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등 협약기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 시와 전북국방벤처센터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입과 사업화 확대를 지원하며 지역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온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협약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수집 심의기구 위원 모집

오는 23일까지 작품추천위원회  
작품수집심의회위원회 구성 위한  
각각 6~7명 위원 모집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전주시가 미술관 소장 작품을 함께 결정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전주시는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추진과 연계해 소장품 수집을 위한 작품수집 심의기구인 작품추천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3일까지 작품수집 심의기구 구성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공개모집 및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시는 전주시립미술관 개관전까지 미술관의 정체성에 맞는 작품을 구입·기증·관리전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할 계획으로, 작품 수집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품추천위원회(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의 1차 검토·추천)와 작품수집심의회(수집 우선순

위, 가액 등 최종 심의·의결)로 이원화한 단계별 검토 체계를 마련했다. 심의기구 구성을 위한 위원 신청 자격은 미술관 학에 실무경력자와 미술·예술학·미학 등 미술 관련 분야 전문가, 미술 시장 거래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미술 연구자 등으로, 전주시 문화정책과(전주시청 별관 7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seemelee@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면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작품

수집 심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4월 중 작품추천위원회 6명, 작품수집심의회위원회는 7명 이내로 선정해 위촉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올해 미술관 대표작 구입을 포함해 기존 중심의 선제적 작품 수집 추진할 계획으로, 심의 기구 구성 완료와 동시에 작품 수집 심의에 착수하는 등 미술관 착공 및 개관 준비 일정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수집에 나설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한-필리핀 농업 협력 강화 "K-푸드+ 수출 확대에 날개 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농업 협력  
강화방안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국민 방문 기간 K-농기계, K-푸드 유통현장을 방문해 수출현황 점검했다.

이러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농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 농산업 우수성을 전파하는 농업외교 행보를 펼쳤다. 농식품부 송 장관은 국산 농기계를 필리핀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해 필리핀 농기계 시장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K-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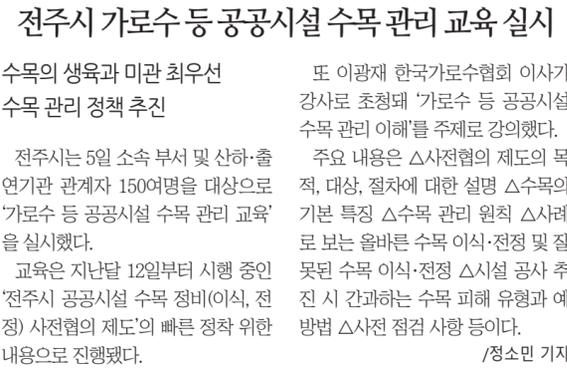
을 가졌다. 업체 대표는 필리핀 농업에 K-농기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필리핀에서 K-농기계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에 국산 농식품을 유통하는 현지 바이어를 만나 필리핀 농식품 시장을 개척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K-푸드 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정소민 기자

최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들 통해 필리핀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 인기가 높아졌으나, 한국산 가장한 농식품 판매도 많아지는 등 K-푸드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체적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가로수 등 공공시설 수목 관리 교육 실시

수목의 생육과 미관 최우선  
수목 관리 정책 추진

전주시는 5일 소속 부서 및 산하·출연기관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주시 공공시설 수목 정비(이식, 전정) 사전협의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소민 기자



## 전북환경청 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확대·강화 추진

새만금·용담댐유역 농업비점  
거버넌스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농업 비점 거버넌스 확대 등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공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을 말한다. 그간 '점오염원'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집중 건설하는 등 관리가 매우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불투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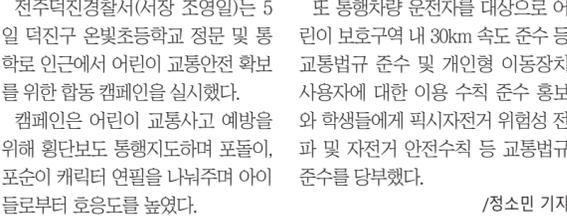
이 확대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강도가 증가하면서 지표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다양 유입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해빙기를 맞아 겨울철 퇴적된 고농도 비점오염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3월부터 4월까지 관내 비점오염원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및 농업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사항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최근 3년 이내 미점검 사업장 및 시설 신

규 설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부지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관련대상 작성 및 구비여부, 변경신고 등 인·허가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점오염 배출량 중 농·축산계 비중이 99%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23년부터 새만금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농업비점 오염관리 거버넌스를 올해부터 용담댐 유역까지 확대

하여 운영한다. 기존 농가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새만금 유역 내 거버넌스를 올해부터 농업경영협의체 등 대규모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최적관리기법(BMPs)을 보급하는 등 비점오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용담댐 유역의 경우 금강수계기금 6억 원을 확보해 총인 배출부하량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초생대·고랑법 설치 등 발비점 관리를 지원하고 토양 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를 지원하고 축산계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경찰서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조영일)는 5일 덕진구 온빛초등학교 정문 및 통학로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통행지도하며 포돌이, 포순이 캐릭터 연필을 나눠주며 아이들로부터 호응도를 높였다. /정소민 기자



# 전북농협, 현장 밀착형 영농어로 해소 '앞장'

## 농심전심 운동 실천 전국 농기계 무상수리 동시 발대식 개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과 하서농협(조합장 기세원)은 5일 농기계 수리 순회봉사 실시 및 제1회 전국 농기계 무상수리 동시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심전심운동(農心天心)운동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영농지원을 활동을 본격

추진했다. 발대식에는 농협인직원과 전북농협 농기계기술자협의회(회장 허재용)와 농협호남자재유통센터, 농기계 생산업체(TYM, 대동공업(주), LS엠트론, ㈜아세아텍, (유)삼정기계) 정비요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농업인의 영농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와 함께 진행된 순회수리 봉사에서는 스트래터 120대△경운기

30대 △소형농기계 30대 등 총 160여 대 농기계를 점검·정비했다. 현장에서 무상점검과 소모성 부품 교체, 간단한 장비를 점검해 농업인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철 적기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과 자가점검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기세원 조합장은 "농업인의 마음을 늘려주어 주는 것이 농심전심운동의 본질"이라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안

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영농편익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기계기술자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농기계 순회 및 점검이 필요한 농업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순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박병철 전주시지회 의장, 출판기념회 가져

'새로운 도약 칼럼집 출판' 이 자리에서 박병철 의장은 "29년 간 농협에 근무하며 제 모든 고민의 중심에는 항상 '현장'과 '사람'이 있었다"며 "아울러 나는 신문 칼럼을 통해 우리 농민들의 땀방울과 노동자들의 애환을 대변하고자 했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박 의장은 "책에 담긴 고민과 비전을 바탕으로 전북도의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이정현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 우범기 전주시장과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권특별위원장, 이날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 황호진 전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정관계 인사가 참석했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이성윤 최고위원 등이 영상매체를 통해 축하 인사를 보냈다. 이정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과 노동 전문가로서, 그가 보여준 고민과 진정성이 이번 칼럼집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며 "지역사회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준비된 일꾼의 면모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병철 전주시지회 의장은 제9대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지난달 26일 선언했다. /김영태 기자

#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구축 참여기업 모집

## 26일까지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 200개사 모집

중기부는 2026년 중소기업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구축' 사업은 2028년 7월부터 시행되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등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기후 규제에 대비해 국내 협

력 중소기업들이 공급망 재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개별 기업 지원 외에도 원청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수행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모집 방식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원청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전문가의 현장 방

문을 통해 경영 체계와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심층 진단을 우선 진행한다. 심층진단 결과에 따라 보통 수준 기업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효율화 △산업안전보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인벤토리 구축 등 취약 지표 개선을 위한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우수 수준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국제인증취득 등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자가진단 참여 기업 등을 대

상으로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미뱅크 등 민간은행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기업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성과를 점검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mss.go.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ESG 통합플랫폼(www.esg.kosmes.or.kr)을 통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 국민연금-뉴욕멜론은행 'AI 금융혁신 세미나' 개최

## 금융산업 내 AI 기술 적용사례시사점 공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우)은 5일 공단 본부에서 세계 최대 신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과 함께 '금융산업과 인공지능(AI)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욕멜론은행(BNY)은 1784년 설립돼 전 세계 금융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글로벌 1위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59조 달러 규모의 수탁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전주시무소를 개소한 이래 공단의 해외채권 수탁 등 전북지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세미나는 전북이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AI 기반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BNY의 하니 카블라위(Hani Kablawi) 부회장과 팡팡 첸(Fangfang Chen)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 등 주요 내빈과 공단 임직원, 전북 도내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세부 세션은 △주제 강연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또 BNY의 AI Hub 본부장인 로렌스 물만(Laurens Meulman)이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토피크 하미드(Tawfique Hamid) BNY 아시아 데이터 총괄 헤드가 'AI를 위한 데이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해당 세션에서 BNY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데이터분석, 백오피스 효율화 등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예탁결제원, 신한카드파트너스의 AI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전북 금융생태계가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AI 금융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소민 기자

# 국토정보공사, 신임 박규섭 상임감사 취임

## "실용적 감사 실현할 것"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3일 제25대 신임 박규섭 상임감사가 취임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로 취임한 박규섭 상임감사는 취임사에서 "원칙에 기반한 감사를 통해 경영 정상화와 조직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는 실용적 감사 실현과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 도전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이어 "내부통제와 업무 효율을 함께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의 감사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규섭 상임감사는 1966년 충남 서산 출생으로 충남대학교 사범학과를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청 사무처장(국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전략실장, 집단지성센터국장,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충무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소민 기자

임기는 2028년 3월 2일까지로 2년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 예수병원, 실시간 AI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이 환자 중심의 스마트 의료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실시간 AI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전격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24시간 비접촉·비대면 생체신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기존의 환자 모니터링 장비는 무겁고 선이 많은 유선 형태로, 환자의 이동과 일상적인 활동에 큰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씽크'는 작고 가벼운 무선 웨어러블 기기로, 환자의 신체에 간단히 부착GO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등 핵심 생체신호를 비접촉·비대면으로 24시간 연속 수집할 수 있어 환자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극대화했다. 무엇보다 수집된 생체 데이터는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돼 병동 내 중앙 스테이션과 담당 의료진에게 즉각 전송된다. 이를 통해 병동 내 모니터링 사각지대에서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정맥, 심실빈맥 등 심혈관계 응급상황이나 미세한 이상 징후를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골든타임' 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환자 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간호 업무 환경 개선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측은 이렇게 절감된 시간과 에너지를 환자 직접 간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입원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소민 기자

## 농진청 '어린이 농업과학 체험교육' 연중 진행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 (1~3월) △성장과 생산(4~6월) △연결과 확산(7~9월) △미래와 책임(10~12월)이다. 3월에는 1분기 주제인 '생명과 발아'에 맞게 '흙이 알려준 비밀 기술'을 내용으로 교육한다. 회차당 교육 인원은 8명(1개월 8회, 총 64명)이고, 매일 24일 오전 10시에 다음 달 프로그램 예약을 선착순 받는다. 체험 프로그램 신청은 네이버에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검색 후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창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과학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나눔 릴레이 캠페인' 참여

## 특별회비 2천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준원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5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와 함께 '2026 나눔 릴레이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북은행은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 2000만원을 전달했다. 더불어 '08년부터 매년 2000만원씩 19년 동안 총 3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은행은 대한적십자사 전북도

지사로부터 특별회원증을 전달 받았다. 또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JB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도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매년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혈액원으로부터 이동 헌혈버스를 지원받아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전북은행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이웃 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2026 나눔 릴레이 캠페인'은 침체된 지역 내 헌혈 및 기부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

한적십자사 전북도지사가 추진하며, 전북은행은 전북지역 제1호 기업으로서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준원 은행장은 "생명 및 물적 나눔 실천에 앞장선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돼 헌혈과 기부 문화가 확대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며 도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따뜻한 금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신규 입주업체 모집

총 9일·13일까지 신청 선정업체는 기본 1년 계약 후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단, 도박·투기 등 사행성 조장업종 및 불건전업종, 금융·보험·주식·숙박·유흥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외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희망센터는 소상공인 창업·보육 전문기관으로 ▲사무공간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창업 파트너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북소상공인공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aso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천호성 예비후보 “치졸한 네거티브 공세 중지하라”

## 천 후보 “교육감 선거 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고 단박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5일 이남호 예비후보와 일부 언론이 제기했던 현재 교사 교육감 선거운동 의혹 관련 입장문을 밝혔다.

먼저 천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운동 의혹에 거론된 A교사는 “교육감 선거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고 단박했다.

A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타 학교 전문상담교사 B교사 요청으로, 전문상담교사 15명 정도가 천 예비후보에게 학교현장 어려움을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연결



천호성 예비후보

해 준 적이 있다.

특히 천 예비후보와 전문상담교사들과의 간담회 자리는 B교사와 또 다른 전문상담교사인 C교사가 함께 준비했다. C교사는 B교사로부터 천 예비후보와 연결해 준 사람이 함께 올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C교사는 참석자 명패를 만들면서 함께 올 사람이 선거 보좌진일 것으로 짐작해 A교사 소속을 천 예비후보 캠프로 기재했다.

A교사는 간담회에 배석했지만 일체 발언 없이 경청만했다. 또 앞은 자리에서는 명패의 앞면이 보이지 않아 명패의 기재 사항을 알지 못했고 나중 문제가 된 후

알게 됐다.

A교사는 현직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명패를 직접 만들어 스스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박에 드러내는 일을 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결국 명패 기재는 간담회를 준비한 상담교사 모임 실무자의 착오로 빚어진 단순 해프닝일 뿐이다. 따라서 A교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이남호 예비후보는 이를 마치 A교사가 선거에 개입한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왜곡·과장해서 불필요한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경쟁자인 천 예비후보에 대한 치졸한 네거티브 공격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지고 있다고 저열한 마타도어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천 예비후보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해 B교사와 C교사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필요시 합법적 범위 안에서 활용될 것임을 밝힌다.

A교사는 이 사안을 당사자 확인 없이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이를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이남호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교육청,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지원강화

2026년 운영 계획 수립

전북도교육청은 ‘2026년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와 특수학교 중심 직업교육 지역 거점학교를 운영한다.

이어 4-12월까지 전북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연계해 직업체험관을 지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학 준비 및 설계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학생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대학 생활적응을 지원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직업실기 역량을 강화해 취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소민 기자

# 익산시 ‘U-15 청소년 야구단’ 창단

## 생활·전문체육 연계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익산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U-15 청소년 야구단’을 창단했다.

시는 5일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정현을 시장과 익산시체육회 관계자, 선

수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단 창단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익산시 청소년 야구단은 체계적인 훈련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자연스럽게 연계 있는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창단은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지역 스포츠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그동안 시민 누구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힘써왔다.

앞으로도 청소년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야구단 창단은 익산 체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스포츠 저변을 넓혀 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 전북문화관광재단-서울문화재단, 관광 모델 구축 협력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중)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의 전통예술·치유·미술·웰니스 등 지역 고유 관광자원과 서울의 창작·유통 플랫폼을 연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K-Culture’ 확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전략 추진 △복합장르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재

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한 전북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전북 전통예술·대표 공연 콘텐츠의 서울 플랫폼 유통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문화관광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과 서울이 각자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K-Culture’ 확산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다”라며, “해의 관광개발 유치 확대와 글로벌 인지도 제고는 물론, 예술인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현대, 금호타이어와 2026시즌 공식 파트너십 연장

## 상호 브랜드 강화 고객 점점 확대 본격화

전북현대모터스FC가 금호타이어와 2026시즌까지 공식 파트너십을 연장하며 상호 브랜드 강화와 고객 점점 확대에 본격 나선다.

전북현대는 지난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금호타이어와 2026시즌 공식 파트너십 연장 조인식을 개최했다.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윤민석 상무와 전북현대 이도현 단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2026시즌에도 타이어 부문 독점 파트너로서 전북현대 홈경기에서 LED 보드, 구단 버스, 선수단 벤치 등 경기장 내 주요 매체에 브랜드를 노출한다.

선수단 유니폼 슬리브 위치에 금호

타이어 로고를 부착해 경기 중 브랜드 가시성을 확보하고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금호타이어는 경기장 내 고객 초청 프로그램과 체험형 마케팅을 통해 전북현대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잠재 고객과의 소통 기회를 적극적으로 넓힌다.

2024년 첫 파트너십 체결 이후 금호타이어는 전북현대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왔으며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해외 명문 구단과의 파트너십도 추진해왔다.

전북현대에는 K리그1 통산 최다 우승(10회) 기록과 탄탄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파트너사들의 마케팅 효과를 제고하는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양사 파트너십 사진

<사진=전북현대>

전북현대 이도현 단장은 “금호타이어와 2026시즌 공식 파트너십을 다시 이어가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팬 경험을 확대하고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체육회, 릴레이 시·군체육회 정책간담회 스타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오는 9일 익산시체육회를 시작으로 릴레이 시·군체육회 정책간담회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해당 시·군체육회 임직원과 시·군별 회원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되며 체육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체육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

체육대회, 전북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를 비롯해 올해 역점 추진할 사업 등을 안내하고 경청할 예정이다.

도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전북 체육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로 시·군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소중한 의견들이 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꽃가루 알레르기증상

알레르기비염

파부염

알레르기 결막염

천식

# 꽃가루

# 알레르기

### 생활 속 관리와 예방법

## 꽃가루 알레르기 “이렇게” 관리하세요

- ☑ 외출 전 ‘오늘의 꽃가루 농도’ 확인하기
- ☑ 외출 시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 착용하기
- ☑ 꽃가루 농도가 적은 늦은 오후, 비 온 직후 외출하기
- ☑ 귀가 시 옷을 털고 겉옷은 현관에 보관하기
- ☑ 바로 세수·세안, 샤워 후 옷 갈아입기
- ☑ 주기적으로 실내 청소, 짧게 환기하기
- ☑ 베개와 이불은 주 1회 이상 온수로 세탁하기

## 군산시, 2026년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

군산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기한 내 실시간 촬영한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 증빙자료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만 선착순으로 참여자가 선정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발적인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기간(신청월부터 10월까지) 동안 일평균 주행거리 감축에 성공한 경우 2만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이며, 법인 및 단체 소유 차량과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군산시는 2025년 신청 승인 차량 366대 중 194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2026년에는 약 350명의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임산부에 연 48만 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익산시가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27일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가 연 48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20%(9만 6,000원)를 부담하면 과일, 채소류, 축산물 등의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은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유기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이다. 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등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제출 서류는 출산 산모의 경우 출산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임신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오는 16~27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정원 문화 확산 위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생 모집

정읍시가 지역 내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제8기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참여자 30명을 5일부터 모집한다.

올해 교육은 기본 교육 과정(20명)과 심화 교육 과정(10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기본 교육은 정읍시에 거주하며 수료 후 지역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화 교육은 기존에 기본 교육을 수료한 시민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정읍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수행 기관인 꽃담원 이메일(songis105@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수강료 지원이 눈길을 끈다. 기본 교육의 경우 1인당 110만원의 전체 교육비 중 정읍시가 100만원을 보조해, 수강생은 10만원만 부담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수강료 120만원인 심화 교육은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들은 오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읍시 첨단과학로에 위치한 꽃담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평소 식물과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많았던 시민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을 두루 갖춘 훌륭한 시민정원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청년 자립 지원' 32억 투입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역정착 지원사업 두배적금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취업 준비부터 지역 정착, 자산 형성까지 청년의 자립을 돕는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32억 원 규모의 청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등 3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으로, 중위소득 및 근로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당은 학원·인터넷 강의 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참여 기간 중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5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진로개발·역량강화 교육과 맞춤형 멘토링도 함께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320여 명을 선정한다. 신청은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누리집(jbyouth.ezwe.com)에서 가능하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사회 초년생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사형성·유형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건강관리, 교육, 문화·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농업·임업·어업·중소기업·문화예술·연구소기업 등 6개 분야에서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ttd.ezwe.com)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480여 명을 선정해 5월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동일 금액을 적립해 2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산 형성 사업



청년활력수당,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진=익산시>

이다.

참여자는 금융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저축 습관 형성과 생애 재무설계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근로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누리집(double.jbt2030.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00여 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은 익산시 및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오는 5월 말까지

## 농가 소득 안정 도모

정읍시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기한 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스마트폰과 PC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청을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 시는 농업인들의 신청 편의를 대폭 높이기 위해 기존 1개월이던 비대면 신청 기간을 3개월로 늘렸

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은 농업인은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상 농업인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3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간편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이나 법인 역시 농업e지 누리집(www.nongupez.go.kr)에 접속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새롭게 도입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대면 신청 대상인 신규 신청자나 관외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 5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5월 말까지 신청 접수가 모두 마무리되면, 시스템과 연계된 행정 정보를 활용해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후 농지의 원래 형상과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등 16개 준수 사항 이행 여부와 실제 경작 현장을 꼼꼼히 점검한 뒤,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최종 확정해 오는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적극적인 공익직불금 신청 호보를 통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크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수도산 복합문화센터' 새 이름 찾는다

## 문화·육아 복합시설

## 9~23일 공모 진행

익산시가 복합 문화공간인 '수도산 복합문화센터'의 이름을 찾기 위해 시민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모은다.

익산시는 오는 9~23일 '수도산 복합문화센터 공간 명칭 공모전'을 진행한다

수도산 복합문화센터는 △그림책 숲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잔디광장 등으로 이뤄진 공간이다. 그림책 열람·교

육, 장난감 대여, 영유아 놀이 체험, 부모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시는 수도산 복합문화센터 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아우르는 아동친화 문화공간이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중심 문화·육아 복합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주제는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아동친화 공간의 의미를 담고, 도서관과 육아지원 기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친근하고 창의적인 명칭이다.

익산시민은 누구나 익산시청 누리집

(참여소통-시민소통-설문조사)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네이버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수도산 복합문화센터 일대 공간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들이 편히 소통할 수 있는 익산시 아동친화 정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담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나서

## 민생 회복·지역경제 성장

## 촉진 위한 방안 논의

군산시는 5일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26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보고사업으로 △재해취약지구

및 풍수에 생활권 정비사업 △새만금기업성장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발도동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 △새만금 스마트 수산기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안전과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의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포함됐다.

또한, 부진 예상 사업에 대한 집행 제고 방안도 집중 논의해 중단 없는 사업 추진과 계획적 예산집행으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

했다.

시는 계속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마무리에 집중하고,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적기 이행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경제 회복 촉진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2026 구절초 꽃축제 준비 '착착'

### 기본 계획안·운영 논의

정읍시가 제19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채로운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구절초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로 19회를 맞는 축제의 기본 계획안과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구절초 꽃축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축제에서 구절초의 품격 높은 경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배경으로 편안하게 쉬며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과 포토존

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6개 분야 40여 개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이 검토됐다. 중심에 자리한 잔디광장에서는 개방감을 살린 공연과 힐링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또한 시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오는 6월 음식·제품 품평회를 통해 우수업체를 엄선하고, 사전에 가격협의 회를 거쳐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구절초 지방정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체험,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편리성과 안전성이 조화를 이룬 축제가 되도록 빈틈없이 챙겨나가겠다"며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명품 가을 축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사진=군산시>

## 군산시-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 상호기부

### 상생·협력 다짐

군산시와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상호 기부했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5일 열린 기탁식에는 양 노조 위원장 및 임원 각 20명씩 총 4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공감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20일까지 '청년수당' 접수

### 최대 360만원 지원

정읍시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0일까지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수당(활력·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시는 청년들이 처한 각기 다른 상황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두 가지 맞춤형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먼저 취업을 준비하며 구직 활동 중 인 청년의 도약을 돕는 청년활력수당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매월 포인

트 25만원과 정읍사랑상품권 25만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도내 농업·임업·어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현장에서 3개월 이상 성실히 종사 중인 재직 청년을 위한 지역정착수당도 마련됐다. 이 수당은 2025년 10월부터 12월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원한다.

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청년활력수당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누리집(jbyouth.ezwe.com)'에서, 지역정착수당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ttd.ezwe.com)'에 접속해 기한 내에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교육급여 대상자 행정이 먼저 찾아 지원

익산시가 복지 대상자를 직접 찾아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익산시는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이 어려운 세대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관책정'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지 대상자가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통합신청이 어려운 교육급여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 신청이 어려운 가구 가운데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있는 세

대를 대상으로 직권으로 교육급여를 책정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직관책정을 통해 110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세한 사항은 익산시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고창군, 국제적 기후변화 분석지로

##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WMO GSRN 공식 등록 성과 공식화

고창군이 5일 고창군 대산면에 위치한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 등록기념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번 제막식은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2025년 12월 16일 WMO GSRN 관측소로 공식 등록됨에 따라, 등록 성과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고창군수,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 관계자, 중국 등 해외 내빈 등 30명 내외가 참석했으며, 행사는 등록 경과보고, 축사, 현판 제막,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 표준기상관측소는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핵심 시설로, 지상 기상 관측장비의 성능 시험 및 비교 관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측소는 약 1만9687㎡ 부지에 현안 및 연구용 장



고창군 세계기상기준관측소 현판식 <사진=고창군>

비를 갖추고 있으며, WMO 기준 최상위 등급의 우수한 관측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상기준관측망(GSRN)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감시를 위해 장기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자료를 생산하고, 국가별·지역별 관측자료를 공통 기준 아래 비교·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관측체계다.

현재 GSRN 관측소는 전 세계 13개국 19개 관측소가 등록돼 운영 중이며, 아

시아권 등록국은 중국(2개소)에 이어 대한민국(고창 1개소)이 두 번째로 포함돼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등록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관측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성과"라며, "현판 제막식을 계기로 국제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고, 신뢰도 높은 기상·기후 자료 생산이 군민의 일상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부부 공동 육아 준비' 문화 확산

### 출산 준비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는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행복한 엄마되기, 온맘챌린지'를 4월과 10월, 연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챌린지형 출산 준비 과정으로, 실습 중심 교육과 미션 수행을 통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공동 참여를 유도한다.

대상은 김제시 보건소 등록 임신부와 배우자이며, 회기별 15쌍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총 4회 운영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참여 신청은 오는 9일부터 네이버폼으로 가능하며, 홍보물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인원이 제한돼 있고 매 회기 참여자 호응이 높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신생아 육아 교육 △베비 마사지 △부부 요가, △모빌 만들기 체험이며, 회차별로 △태아 교감 실천 △건강한 부모 준비 △'우리 아이 맞이 준비' 챌린지를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며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 준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2500명으로 확대

고창군이 올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난해보다 500명 늘린 25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무료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50세 이상(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군민을 대상으로 생백신 1회 접종한다. 단, 이미 대상포진 백신 접종 이력이 있는 자와 대상포진 진단 후 완치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접종 제외 대상이다.

접종 기간은 9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이며, 접종 장소는 고창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다. 접종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보건지소의 경우 지소별 접종 일정이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극심한 신경통과 합병증을 유발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발병 후 치료가 어렵고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고창군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대상포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시행

### 신청 시상시 지원

고창군이 고창읍을 시작으로 관내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논·밭두렁에서 고춧대·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신청한 농가에 나가 파쇄기를 사용해 무료로 분쇄해 주는 사업이다. 자연순환 문화를 정착하고 봄철 산발적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미세먼지

발생도 낮춘다.

고창군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고령농과 여성 농업인, 취약계층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상반기에는 신청을 접수한 104개 농가, 68ha 규모로 우선적으로 파쇄 작업을 진행한다. 추가로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상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 '2026 김제꽃빛드리축제' 내달 개막

## 주민참여축제 성격 강화 4월 3~5일 개최

김제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6 김제꽃빛드리축제'를 오는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3일간 김제 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꽃빛드리축제는 지난 2023년 시내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김제시의 대표적인 도시형 봄 축제로 주민이 직접 행사 기획과 공간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축제' 모델로 발전해 왔으며, 지역 예술인을 비롯한 청년·주민 단체가 함께 만드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은 꽃빛드리 축제만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26 김제꽃빛

드리축제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봄날의 놀이동산'을 주제로, 축제의 주제인 꽃과 빛을 매개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완성하는 주민 참여형 축제와 체험형 감성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축제장을 놀이동산으로 설정해 몰입형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꽃빛드리축제가 시민들에게는 일상의 유희가 되고, 방문객에게는 김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 김제꽃빛드리 축제장 내 먹거리 및 지역 농특산물 등 판매 부스 운영을 위한 참여자 모집은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세부 프로그램 일정은 김제시 공식 홈페이지 및



김제 꽃빛드리축제 <사진=김제시>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김제시>

## 김제시, 건강안심데이터 사업 '주목'

### 응급상황 신속 대응

김제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인 역량활용사업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복용 약물, 혈액형 등 개인의 료정보를 사전에 정리·관리해 119 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건강안심데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김제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연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김제시니어클럽(관장 천경희)이 추진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단 중 하나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된 건강안심데이터 사업은 시행 한 달여 만에 실제 응급상황 대응 사례로 이어졌다. 지난 2월 15일 저녁, 만경읍의 한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보이자 이웃 주민이 집주소 스티커를 활용해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사전에 작성된 개인 의료정보를 구급대원에게 전달하며 초기 대응에 도움을 주었다.

개인 의료정보지에는 현재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지병 및 복용 약물 정보가 체계적으로 기록돼 있어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건강안심데이터 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응급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향후 통합의료돌봄 정책과 연계해 지역 돌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

## 해양분야 핵심 현안사업 정책 반영 지원 요청

김제시가 해양분야 핵심 현안사업의 정책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제시 이현서 부시장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의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건의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기획예산처와의 면담에서 이 부시장은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국가 전략적 의미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히 △에너지 대전환 및 RE100 확산 기조 △해양에너지 신산업 육성 △새만금 국가전략 거점 조성 등 새정부 핵심 정책 및 국정 과제 등과 본 사업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는 연안습지, 갯벌, 하구역 등 해양과학을 소개하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의 해양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임과 동시에 새만금은 해양도시와 에너지 전환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국가전략 거점이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인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은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김제시 진봉면(구)신포항 일원에 총사업비 1,354억원

을 투입해 재생에너지·첨단모빌리티 등 새만금의 신산업과 RE100 산업 전환을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문화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신청돼 있는 상태다.

이 부시장은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은 재생에너지, RE100, 신산업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양항만도시 김제 도약을 견인할 핵심 현안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 모집

## 16일까지 총 30명 모집 최대 500만원 목돈 마련

고창군이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전라북도

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30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전북청년허브센터 누리집(www.jb2030.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건전한 지속 습관을 형성하고, 결혼·주거·창업 등 미래 준비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체험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5일 2026년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위기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통합적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급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이며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군청 관계부서 공무원

이 참석해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연간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정서행동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공감되고, 기관 간 사례 공유와 신속한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미란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총 14명

이 참석해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연간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교육 과정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영농정책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신청 시 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돼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교육이 예비 귀농귀촌인 여러분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교육 이후에도 심화교육과정 등 체계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순창군,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확대 운용

### 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 체결 지역 금융기관 참여 확대 보조사업자 이용 편의 개선

순창군이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금융기관을 확대 운용한다.

군은 지난 4일 먼저 순창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계좌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양영수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영수 쌍치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와 지역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 금고은행만 가능했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범위를 지역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보조사업자의 계좌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 내 기관의 공동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보조사



4일 순창군-순창새마을금고-쌍치새마을금고 업무협약 <사진=순창군>

업자들은 농협은행, 전북은행 뿐 아니라 지역 새마을금고까지 전용계좌 및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접근성과 편의성이 훨씬 커졌다.

양영수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 금융기관이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과 보조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보조사업자의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계좌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자금 이체와 계좌 관리 등이 이루어진 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자연재해 안전도 2년 연속 최고 'A등급'

### 행안부 평가 상위 15% 등급 유지 복구비 국비 지원 2% 상향

완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방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재난 예방 대책, 대응 체계 구축, 시설 점검 등 지자체의 방재 역량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제도다.

완주군은 전체 지자체 중 상위 15% 이내 기관에만 부여하는 A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하며 방재 행정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이번 성과는 완주군의 재난 대응 체계가 일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행정 전반에 걸쳐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완주군은 향후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비 국고 지원 비율 2% 추가 상향 혜택을 계속 해서 유지한다.

또한 각종 재난 안전 관련 공모 사업

참여와 국비 확보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를 동력 삼아 더욱 총출력 재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년 연속 A등급 결과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씩 없이 달려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러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재난 없는 완주,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춘향제 '스춘파' 열린다...전국 청소년 춤꾼 집결

### 청소년팀 스트릿·K-POP 경연 활동지원비·1,300만원 시상

대한민국 대표 전통축제인 제96회 춘향제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남원시가 축제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

남원시는 축제 기간 중인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남원 사랑의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스피릿 춘향, 뽕뽕 파이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댄스팀(3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경연은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장차·스트릿·힙합 등) ▲K-POP

커버 댄스경연 등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4월 24일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남원시청 또는 남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댄스 영상과 함께 이메일(namwon3363@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예선을 통해 부문별로 각 12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 무대에서 최종 선정된 부문별 상위 3팀에게는 활동지원비를 포함하여 총 1,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열정"과 "춘향의 멋"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길 기대한다"며 "전국의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축제의 주인공으로서 활약해주길 바란



다"고 전했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및 남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이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청년·신혼 최대 150만원

완주군이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부담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5일부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주거 지원 행정에 나섰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완주군 자체 사업으로 다자녀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해 총출력 보장방을

구축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는 연 최대 15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 내 임차 주택에 신청인 전원(부부 및 자녀 포함)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세부 자격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그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세보증

금 3억 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가 완주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이자 지원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완주군, 농업경영체 민원센터 한시 운영

### 원거리·고령 농업인 편의 5월 28일까지 민원 지원

완주군이 원거리 거주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들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관리원 전북지원과 손을 잡고 '완주농업경영체 민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군은 지난 3일부터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고산면 소재) 본관 1층에 민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오는 5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완주농업경영체 민원센터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전담하며, 필요시 현지

조사도 병행한다. 센터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북지원 방문이 힘들었던 봉동읍, 용진읍, 소양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농업인들은 이제 가까운 민원센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주 지역과 인접한 4개 읍·면(삼례읍, 상관면, 이서면, 구이면) 농업인들은 기존대로 전북지원을 이용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한시적 운영을 통해 농산품 생산물품관리원 완주사무소가 정식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다운' 입실 산모 간담회

### 최경식 시장 방문 현장 의견 청취 건의사항 운영 반영 예정

전북 동부권 최초로 건립된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다운'이 지난 1월 첫 산모 입실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이 4일 현장을 방문해 입실 산모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산모들의 생생한 후기를 직접 듣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산후조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하고, 생활 중 느낀 불편함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여한 산모들은 쾌적한 시설 환경과 의료기관 연계 체계, 직원들의 세심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사진=남원시>

남원시는 이날 건의된 생활 편의시설 보강과 프로그램 다양화 등 실질적인 의견들을 향후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남원시장은 "출산과 산후 회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다운'은 이용 대상자를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은 물론 지리산권 인근 시군 및 시민의 자녀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필리핀 문시와 농업 인력 도입 협약

### 농촌 인력난 해소 협력 사전교육·인권보호 교류 강화

완주군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리핀 문(Loon)시와 신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군은 필리핀 지방정부와의 공식 협력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송출 및 도입을 위한 행정 협력을 강화하고, 입국 전 근로자 사전 교

육을 철저히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근로자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힘쓰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문시가 보유한 숙련된 인력을 우선 확보함으로써 관내 농가의 인력 수급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문시와의 협약 체결은 단순한 인력 도입을 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첫걸음"이라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 순창군, 스포츠대회 대비 식품위생 안전 강화

### 식중독 예방대책 협의회 개최 지하수 사용 업소 점검 등 논의

순창군이 연중 이어지는 각종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방문객과 선수단에 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최근 조광희 순창부군수 주재로 전북도청,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중독 예방 대책 협의회'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스포츠 성지'로 자리매김한 순창을 찾는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부서 간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군은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수 담당 부서와

함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강도 높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내 식당 가운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까지 함동 점검반을 통해 소독시설 미비 업소에는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시정 기간 이후에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해 식품 안전에 타협이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소독하기 ▲갈·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등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자 모집

남원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소중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7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철선·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전에 설치업체를 선정하 뒤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대장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오는 3월 25일까지 농경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남원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순창군은 지난 4일 청년문화센터에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입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세외수입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사용료, 공공재산 임대수입, 과태료 등 자체수입으로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체계적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운영지원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세외수입의 기본 개념과 관련 법적 근거를 비롯해 세외수입 시스템의 주요 기능,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대상 관리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는 담당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법령 해석 사례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무교육을 통하여 담당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세외수입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되면 군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 춘향골 햇감자 본격 출하 20kg 박스당 첫출하 7만원선

한겨울 때서운 추위 속에서 농민들의 정성으로 재배된 춘향골 햇감자가 본격 출하를 시작하며 소비자들의 식탁을 찾아가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출하가 시작된 춘향골 햇감자는 주산지인 금지면을 비롯해 송동면과 수지면 일대에서 생산되고 있다. 수확된 감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센터)의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 등 전국 각지로 공급된다.

올해는 작년보다 기후조건이 좋아 하우스 한 동당 평균 100상자(20kg 기준) 내외를 수확하고 있으며, 거래 가격은 최상품 기준 상자당 7만원 이상, 평균 6만 5천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상자당 5~6천원 높은 수준으로, 향후 8만원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가을에 수확해 보관하는 저장감자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춘향골 햇감자가 높은 값을 받는 이유는 우수한 품질에 있다. 금지면 일대 미사 토양의 배수 조건과 농가의 재배 기술이 결합돼 아삭한 식감과 우수한 품질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종자의 차별화도 한몫했다. 남원농업기술센터와 씨감자영농조합이 지리산권(운봉, 인월, 아영)에서 생산한 보급종 씨감자는 휴면기간이 짧아 겨울철 시설재배에 적합해 농가 선호도가 높다.

시는 올해 60여 농가, 200동 이상의 하우스에서 감자를 재배해 약 15억 원의 조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사랑상품권, 3월부터 할인율 12% 상향

임실군이 고품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군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임실사랑상품권을 할인율 기준 10%에서 12%로 상향 판매한다.

이번 할인율 상향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방향에 따른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인 임실군은 국비 7%와 지방비 5%를 반영해 할인율 12%를 적용한다.

지난해 2025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임실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를 통해 당초 170억원 발행 목표에서 21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 바 있다.

2026년 1월부터는 임실사랑상품권 지류 발행을 중단하고, 전면 카드·모바일 발행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임실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으로 카드·모바일 충전 판매하며, 매월 1일 chak(착) 상품권 앱을 통해 판매 개시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4일 제24기 농업인대학 개강식... 본격 교육 운영 돌입

장수군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교육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기 장수군 농업인대학' 개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강식은 최훈식 장수군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교육 일정과 운영 방향 안내, AI 활용 농업 경영 및 마케팅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출발을 알렸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사과반 △두릅반 △신규농업인 기초농반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3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 142시간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군은 각 과정마다 전문 강사진의 지도 아래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작목별 전문기술 습득과 농업 경영 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올해 농업인대학이 농업 현장에 새로운 기술과 경영 방식을 접목해 농가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전 읍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축 완성 '눈앞'

진안군이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의와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성수면과 용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추진하며 2026년까지 11개 전 읍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진안군은 9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총 92종 74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 기준 8,568농가에 1만4,132대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는 핵심 농업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운데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사가 오는 9일 본격 착공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국특 5억 원, 군비 5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공사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8월까지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설계용역 완료와 건축 협의를 마치는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과 운영 준비를 거쳐 2026년 10월 개소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필수 의료 공백 제로화”

무주군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복무 만료 앞두고 소아청소년과 시니어 의사 채용

무주군의 “필수 의료공백 제로화” 노력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주군은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4월 9일)에 앞서 소아청소년과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고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의 채용은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필수진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의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보건 의료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석 무주군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시니어 의사는 1980년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988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36년간 서울에서 ‘기상석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며 지역 아동들의 건강을 책임져



무주군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진료

<사진=무주군>

온 베테랑 전문의로 알려져 있다.

홍찬표 무주군보건의료원장은 “농촌 지역 특성상 전문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깊이 있는 진료 철학과 풍부한 임상 경험, 전문성까지 두루 갖춘 시니어 의사가 합류했다는 것 자체가 희소식”이라며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진료 공백 없이 소아청소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안정적

인 진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니어 의사 채용을 계기로 무주군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9월 10일 개막

제1차 축제추진위원회 정기총회 축제일자 등 확정 의결

장수군의 대표 축제인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올해 추석 2주 전인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동안 추진된다.

장수군은 군청 군민회관에서 김흥기 축제추진위원장의 주재로 ‘2026년 제1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추진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축제일자 등 주요 안건을 상정해 확정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예산결산 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

인, 추진위원회 위원 변경 및 위촉,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일자 확정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는 방문객 32만 명 이상이 찾으며 7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 지역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신축관 교통 대응과 붉은 색 꽃인 비베고니아 배치를 통한 상징적 경관 조성, 외부상인존 양성화, 무더위쉼터 운영, 한우마당·사과마당 시설물 개선 등 운영 전반의 내실을 다지며 한층 성숙한 축제로 평가받

았다. 특히 제20회를 맞는 올해 축제는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장수군의 레드푸드 및 농특산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그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군민이 주도하고 관광객이 함께 아우러지는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해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물 축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실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형 통합돌봄지원 전담팀 본격 출범

임실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임실군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5일 남원의료원과 임실시니어클럽, 지역자활센터 등 3개기관과 서비스 제공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심 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앞서, 군은 올해 1월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임실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고령화 심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기관과 사업별로 분절 운영되던 서비스로 인해 발생했던 지원 공백과 중복문제를 해소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대상자 발굴 및 통합관정 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조정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정보공유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돌봄체계 구현을 핵심으로 한다.

군은 법 시행 취지에 맞춰 기존 부서별로 운영되던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신설된 통합돌봄팀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지역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군 보건의료원 재택의료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 서비스

연계 기관 등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부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췄다.

군은 지난 1월 임실군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키고, 2월에는 민·관 전문가 13명이 참여한 제1회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 시행 이전부터 실무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장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보완하는 등 사업추진 준비를 완료했다.

앞으로 전담팀은 대상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돌봄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요양 △일상돌봄 △주거환경 개선 △요양·복지 서비스연계 등 통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월 2회이상 정기적인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돌봄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계획의 적정성과 지속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무주 로컬 스케일업 기업 지원사업’ 추진

지역기업의 성장잠재력 키운다 선정 기업 성장 단계 맞춤 지원

무주군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 내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무주 로컬 스케일업(Scale-Up)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소재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상품 개발, 홍보 및 판로 확대, △고용 연계 등 종합적인 성장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

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장 진입 및 확장 단계에서는 시제품 제작과 상품 개발,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마케팅 홍보비 등 기업당 최대 1천2백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무주군 지역 내 축제와 관내 공공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 임차 및 운영을 지원해 실질적인 홍보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시장의 연계 성장을 도모한다.

고용·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별

맞춤형 구직자 발굴 및 채용 연계와 더불어 인사·노무, 회계, 마케팅 등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체험, 농식품 가공, 문화 콘텐츠, 생활소비재 등 무주군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일(~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우편(hanoh1567@kijeon.ac.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정월대보름 행사 성료

12개마을서 정월대보름 행사 필봉굿달집태우기장관

임실군은 지난 3일,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군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병오년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가무형유산인 필봉정월대보름굿이 열린 강진면 필봉마을을 비롯하여 오수면, 삼계면 등 임실군 내 12개 마을에서 일제히 펼쳐졌다.

올해로 45회를 맞이하는 필봉 정월대보름굿은 필봉마을에서 행해져 오던 마을굿과 함께 한 해의 목정성과 액운을 쫓는 ‘붉은 말’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기곳, 당산제, 샘굿, 마당밭이, 판굿 순서로 진행되며, 국가무형유산

임실필봉농악의 정수를 알 수 있는 흥겨운 판을 볼 수 있다.

또한, 관람객들의 한 해 소망을 담은 소지가 달린 달집을 훨훨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는 달집태우기를 재현하고, 달집을 태우기 후, 다시금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대동놀이 곳곳으로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푸진굿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은 1990년 이후 36년만에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 붉게 보이는 ‘블러드문’ 개기월식 현상을 관측 할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고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붉은 말’의 상징성과 액운을 쫓는 ‘붉은 말’의 신비로움이 어우러져 군민들에게 잊지 못할 장관이 선사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제5기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

노사 상생 협력체계 구축

장수군은 지난 3일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장수군공무직 지부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운동수 지부장, 공무원 노조 집행부 임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5기 전국공공운수노조 장수군공무직 지부 집행부와 상호 인사를 나누고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지난해 노사 간 협력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해 노동조합 운영에 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협의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또한 공식적인 교섭과는 별도로 근무조건과 조직문화 개선, 후생복지 향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수군은 올해 공무원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반딧불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주력

농산물 포장재 지원·공동 선별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등

무주군은 올해 ‘반딧불’ 브랜드까지 제고와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한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공동 선별비 지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특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눈에 띈다.

사업비가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16억 6천만 원(군비 50% 자부담 50%)으로, 과일 포장재와 일반 농산물 포장재, 가공식품 포장재가 지원된다.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은 농산물산지 규모화와 물류 효율성 제고, 유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며 올해부터는 복숭아에 더해 사과, 여름딸기까지 2개 품목이 추가돼 산지 유통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딧불’ 품목이 추가돼 산지 유통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딧불’ 품목이 추가돼 산지 유통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한편, 농·특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사업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알림마당-무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농협은행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받아

장수군은 군 금고인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로부터 제휴카드 사용으로 조성된 적립기금 5,006만원을 전달받아 지역 환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장수군은 지난 4일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최훈식 장수군수장과 정현주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된 기금은 총 5,006만원으로 2025년 한 해 동안의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조성된 금액이다.

이번에 적립된 기금은 장수군이 NH

농협은행과 제휴해 운영 중인 법인카드, 보조금카드, 공무원복지카드 등의 사용 금액 중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이번 적립기금을 군 재정에 편입해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환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현주 지부장은 “장수군과의 협력을 통해 조성된 적립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시 쓰이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은 지역과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정읍시 공동면체육회, 정월대보름 할발 나눔행사 진행

정읍시 공동면체육회(회장 장경하)는 체육회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할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할발과 김을 마을별로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음식을 전달받은 어르신들은 "덕분에 정월대보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경하 회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경민 기자



군산 나운3동, 착한가게 2곳 신규 가입... 지역 나눔 온기 확산

군산시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업체 2곳이 '착한가게'에 신규 가입하며 정기기부를 통한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2곳은 '락앤조이 파크골프 아카데미(대표 문성민)'와 '남양우유 군산가정 대리점(대표 신경재)'이다.

특히 '남양우유 군산가정 대리점'은 최근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 착한가게를 재가입하며 기존에 이어오던 따뜻한 나눔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락앤조이 파크골프 아카데미' 문성민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어 참여했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밝혔고, '남양우유 군산가정 대리점' 신경재 대표는 "가게가 이어온 나눔의 가치를 계속 지키고 싶었다"며 착한가게 동참의 뜻을 전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캠페인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저소득 가구, 위기 가정 등을 위한 생계비 및 긴급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군산=지승길 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대한노인회 공로상 수상

어르신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 위한 따뜻한 의정활동 공로 인정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5일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정기총회 및 지도자교육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유 의장은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인복지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써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 확대와 경로당 운영 지원,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그동안 유 의장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 개선과 운영 지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등 다양한 정책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의식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회원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주신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 시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



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무주초리농마을공동조합, 이웃돕기 성금 50만원 기탁

무주초리농마을공동조합이 5일 무주군 적상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영우)에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전달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이경환 대표는 "무주정풍농이축제 수익금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전달하게 돼 흐뭇한 마음"이라며 "축제가 적상면을 넘어 무주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축제를 찾아 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과 지역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무주정풍농이축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적상면 지역 내 장애인 가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이리동로타리클럽, 익산 취약계층에 '반찬쿠폰' 지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

익산시는 국제로타리클럽 3670지구 이리동로타리클럽(회장 조승완)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50만 원 상당의 반찬쿠폰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리동로타리클럽은 지난해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에 따라 올해도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 돌봄환경이 열악한 주민, 통학사례

관리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는 식생활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선정해 개인별 기호에 맞는 반찬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영양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승완 회장은 "작년 한 해 이웃들이 보내준 감사의 마음을 잊지 못해 올해도 지원을 결정했다"며 "단단한 한 끼를 통해 지역사회의 온기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 금산면 새마을부녀회, 장학금 기탁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은금)가 지난 4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금산면 관내 만학도를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금 50만 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 반찬 지원, 이불 기부 등 이웃사랑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다.

또한 새마을부녀회는 다양한 활동 수익금을 김제사랑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이은금 새마을부녀회장은 "지역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 남성재경로당박재계 노인회장, 성금기탁

고창군 대산면 남성재경로당 박재계 노인회장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대산면에 따르면 지난 4일 정현영 대산면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남성재경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재계 노인회장이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경로당 운영 현황

을 살피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나눔과 소통이 함께 어우러진 뜻깊은 시간이 됐다.

박재계 노인회장은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구이노인복지센터, 정월대보름 '오곡밥' 나눔

완주군 구이노인복지센터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 대상자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오곡밥을 나눴다.

센터 소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들은 어르신들이 드실 오곡밥과 김을 정성껏 준비해 각 가정을 방문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오곡밥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대보름에 오곡밥을 먹어야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덕분에 올해는 복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안정현 구이노인복지센터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르신들께서 절기를 느끼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이노인복지센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Advertisement for Jeonbuk Times newspaper with the headline '도민의 삶을 담다, 전북의 이야기를 전하다' and contact information: 282-9601, 282-9600, 282-9600, https://www.jeonbuktimes.co.kr

〈一事一言〉



신뢰가 생명인 검사·판사·기자·목사, 불신의 늪에 빠져(1)

송요훈  
언론인

우리는 불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불신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입니다. 피를 나누는 가족이 아니면 대체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언론도 믿지 못하고 종교도 믿지 못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국가기관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과 탄원과 투서와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하고, 판결을 믿지 못하니 재판 불복이 다반사이고, 언론을 믿지 못하니 가짜뉴스가 언론처럼 유행하고, 의사를 믿지 못하니 인터넷에서 직접 치료법을 찾고, 스마트 시대인데도 미신을 숭배하고 집집은 성황을 이루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성적인 선거운동보다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쓰고 TV토론에 나가는 것입니다.

흔히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신뢰도가 높은 사회는 담장이 없어도 안전하다고 느껴 불안하지 않지만,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담장을 높게 세우고도 불안하여 담장 위에 철조망이나 유리 조각을 꽂아두어야 안심하게 됩니다. 그게 불신의 비용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선 사소한 약속은 말로 해도 되지만 신뢰도가 낮은 사회에선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야 어야 안심하게 됩니다. 그게 모여 불신의 사회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불신에 따른 사회비용은 엄청 납니다. 2013년에 나온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은 사회적 신뢰의 결여로 한 해에 최대 246조 원을 갈등관리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으니 10년도 더 지난 지금은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보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믿을 수 있다는 답변이 2014년에는 74%였으나 2024년에는 56%로 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신뢰가 낮는데 택배기사가 길가에 물건을 부러놓은 채 다른 곳으로 배달을 가도 훔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카페에서 테이블에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그걸 보고 놀란다고 하지요. 어떤 전문가가 우리 사회가 사람에게 대한 신뢰는 낮지만 사회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높아서 그렇다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겐 체면 의식이 있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 적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셔서 전이라도 부치면 할머니는 꼭 이웃들과 조금씩이라도 나눠줬습니다. 손님이 사랑방 자라도 들고 왔으면 다만 몇 알씩이라도 동네 사람과 나눠줬습니다. 손님이 오는 걸 봤고 전 부치는 법새가 나는데, 혼자만 먹는다고 손가락질하고 흥이라도 불까 할머니는 무척 신경을 쓰셨는데, 그게 체면 의식이 아닐까 합니다.

'혼자만 잘살려주는 재민' 하

던 고 전우익 선생의 말씀이 공동체 의식이고 체면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신분이 높아지고 출세할수록 그런 의식이 사라지나 봅니다. 사회 신뢰도 조사를 보면, 많이 배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대한 신뢰도는 항상 낮게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고, 판검사가 그렇고, 의사가 그렇고,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출세할수록 염치는 사라지고 얼굴을 두꺼워지는 게 한국의 먹물들이나 봅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매년 전 세계 40여 국가를 대상으로 각 나라의 국민이 자기 나라의 언론매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하여 보고서를 냅니다. 그걸 보면, 한국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조사대상 국가 중에 항상 꼴찌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국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가장 불신받는 매체로 언론 불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담당합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반성과 성찰은 없고 불신을 강화하는 일만 반복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들은 특정 주식을 산 뒤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우는 주가조작으로 돈벌이를 하다 들롱났습니다.

대항상의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허위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담합이라도 했는지 기자들은 그걸 그대로 베껴 가짜뉴스를 살

포했다가 언론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들은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고자질하듯이 한국의 사정을 알리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내정간섭' 보도를 했다가 '그게 언론이 할 짓이냐'는 질타를 받았습니.

그 모두가 여론을 의도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과장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도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목적의 징벌적 배상이나 허위조작 정보 처벌에 반대하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이른바 재래식 언론이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되고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생명은 신뢰이고, 신뢰할 수 없는 언론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끄럽다며 성찰과 자정을 말하는 기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탐사 보도에 권위가 있는 시사주간지 <시사IN>은 매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기사를 게재합니다. 2025년 10월의 기사를 보니, 대통령(청와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습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 타운홀 미팅 이후, 실행력이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이 끝났다. 이 자리는 전북의 목소리가 국정 중심에 들어왔다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무엇보다 각 부처가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구상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청사진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이번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전북의 성장 전략은 국가 계획과 본격적으로 맞물리기 시작했다. 특히 새만금과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 구상이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과 연결되면서 전북의 미래 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새만금 기본계획 재편 방침은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다. 전체 개발 면적의 상당 부분을 2040년 이전으로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신호탄이다.

에너지와 산업 측면에서의 변화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새만금은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지닌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거점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3.3GW 규모의 사업을 2030년까지 우선 가동하고, 이를 기반으로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세계적인 산업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9조 규모 투자 협약까지 더해지면서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첨단 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소 산업 역시 전북이 주목해야 할 핵심 축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과 원주 수소 상용차 공장과의 연계는 생산과 활용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

는 기반이 된다.

전주 대도시권의 공간 혁신 역시 중요한 변화의 축이다.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연기금 자산 운용 기능을 집적해 금융 거점으로 성장시키려는 구상은 전주가 금융과 문화가 결합된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 조성되는 MICE 복합단지는 전시·컨벤션·관광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광역 교통망 구축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전북의 공간 구조는 한층 역동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그러나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가 실제 고용 창출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산업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이 머물며 가족이 정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형 투자도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교육·주거·문화·교통을 아우르는 삶의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전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전북이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작이 아무리 의미 있어도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약속으로 남을 뿐이다.

이제는 정부와 전북도, 정치권, 지역 사회가 함께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전북의 미래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에서 결정된다. 지금이야말로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 때다.

문화재 열전



학정리석불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불교조각, 석조, 불상
- 지정일 - 1979년 12월 27일
- 시대 - 고려시대
- 소재지- 임실군 삼계면 학정리 55-2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리)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원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레스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봄날 / 신경림

아흔의 어머니와 일흔의 딸이  
늙은 소나무 아래서  
반대편을 굽고 소주를 판다  
잔을 들면 소주보다 먼저  
벚꽃잎이 날아와 앉고  
저녁놀 비긴 냇물에서 처녀들

별장계 단 불을 식히고 있다  
벚꽃 무더기를 비집으며  
늙은 소나무 가지 사이로  
하얀 달이 뜨고  
아흔의 어머니와 일흔의 딸이  
반대편을 굽고 소주를 판다

삶의 마지막 고산  
북한산 어귀  
은 산에 꽃내 가득한 봄날  
처녀들 웃음소리 가득한 봄날

시인 약력 :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낮달',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한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

네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며 끼니를 때웠다. 이후 '원격지', '산읍기행', '시제', '농무' 등의 시를 발표했고 시학 해설서인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를 출간하며 작고한 시인들과 생존 시

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진실을 기록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의 언론”

전북 Times



# “내 집에서 건강하게, 일상에서 활기차게” 정읍시, 어르신 행복 도시로 도약



정읍시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 노인복지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올해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63%에 달하는 1787억원을 노인복지 분야에 투입해 소득, 돌봄, 건강, 안전 등 4대 핵심 영역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병원이나 시설 입소 대신 어르신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를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초고령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복지 표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편집자주〉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본격 가동 노인일자리·맞춤돌봄 확대, 활기찬 노후 지원

■ 노인 인구 3만 3000명 돌파, 복지 예산 1787억원으로 확대 편성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정읍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37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시 인구의 33.4%에 해당하는 수치로, 시민 3명 중 1명이 노년층인 셈이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읍시는 재정 운용의 무게 중심을 노인복지에 맞추고 있다.

올해 정읍시의 총 사회복지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3496억원 규모다. 이 중 노인복지 분야 예산은 지난해 1694억원에서 5.4% 증액된 1787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시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유지, 의료적 개입, 사회적 참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각적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전국 시행 앞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안착

올해 정읍시 노인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전면적인 확대 및 고도화다. 이 사업은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병원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본인이 평생 살아온 집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의료, 요양,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했다. 대

신, 대상자의 건강 상태, 주거 생활 여건, 경제적 상황, 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수립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한다.

특히, 정읍시는 3월로 예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국 시행에 대비해 이미 2024년부터 선도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지난 2년간 보건소,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필수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정읍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추적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투입해 지역사회 안에서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계획이다.

■ 맞춤형 노인일자리 7237개 창출 및 돌봄서비스 3900명으로 확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전하고 신체적·정서적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 운영된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전년(6837명) 대비 400명이 증가한 7237명으로 책정됐다. 투입되는 예산 역시 기존 315억원에서 44억원이 증액된 359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활용(구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통합 돌봄서포터



즈, ‘병원 동행서비스’ 등 취약계층 어르신을 돕는 일자리를 통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생형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로당 급식지원사업을 강화해 지역 돌봄 기능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3600명에서 올해 3900명으로 300명 확대됐다. 생활지원사가 각 가정을 주 1~2회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인부를 확인하고 청소 등 가사지원, 정서적 말벗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 물가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 100세 이상 어르신 실용적 장수물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1% 인상됐다. 이에

건강 상태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품목은 ▲공기청정기 ▲제습기 ▲벽걸이 에어컨 ▲온수매트 ▲이불세트 ▲의류(내의) ▲전동침대 ▲육창 예방 매트리스 ▲건강보조식품 ▲성인용 기저귀 ▲이동식 변기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11종으로 구성돼 실효성을 높였다.

■ IoT 스마트 기기 6종 도입 등 24시간 응급안전망 고도화

어르신들의 신체적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 사업도 다각도로 전개된다. 정읍시는 지난 3일,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현장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고취해 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독거어르신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한다. 시는 올해 노후화된 장비 292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6종(케이블웨이, 화재감지기, 활동감람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스마트워치)의 응급장비를 통해 응급요원들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응급센터와 연결해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의 어르신 한 분 한 분은 오늘의 정읍을 만들어 오신 소중한 주역”이라며 “2026년 정읍시의 노인복지정책은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돌봄 체계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어르신들이 낯선 시설이 아닌, 평생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시장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지평선생명도시 GIMJE 김제

NAVER 지평선들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지표영선 JIYEONGSEON 김제

김제시